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 개발 주목

산자부, 차세대 전지 자문단 구성 ... 2010년 세계강국 목표과제 제시

정부가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도약을 목표로 차세대 2차전지산업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2차전지산업은 전지 설계기술 뿐만 아니라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핵심소재와 Pack 등 관련분야가 다양한데, 특히, 부품·소재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 그쳐 발전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차세대 전지 자문단>은 12월17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0대 성장산업의 하나인 2차전지산업의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2차전지 수출을 2002년 1억7000만달러에서 2010년 69억달러로 늘리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40%로 향상시켜 세계적인 2차전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박정기 교수는 2차전지 시장은 2010년 230억원 규모로, 약 70%가 리튬이온계 전지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 후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될 <고성능 리튬폴리머전지 개발과제>를 제시했다.

기술개발 과제로는 ▷초고용량 및 초소형 리튬2차전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리튬 2차전지 ▷고전압용 초고용량 전기화학 커패시터 ▷고안전성 2차전지 ▷스마트전지팩 기술 등을 꼽았다.

또 2차전지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전지기술 평가사업 추진하고 분야별 거점지역의 기술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표준화 사업,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산자부는 <차세대 전지 자문단>이 제시한 전략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규모를 결정하고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8>